

싱크탱크 위클리

문의: 워싱턴무역관 심재원 과장 (jwshim@kotra.or.kr) 2023.9.18.(월) 제23-104호



◆ [Think Tank]

- (경제외교) 한-미 통상 협력 포럼 주요내용
- (인공지능) 캘리포니아, 인공지능(AI) 정책의 선두주자
- (환경)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후법(Climate Law)을 통한 탄소감축

◆ [의회동향]

- 외국 스파이웨어로부터의 미국인 보호 법안(H.R.5440) 하원 발의(9.13)
- 차량 구매 선택권 보존법(H.R.1435) 하원 통과(9.14)
- 2023년 적대국 특허 금지법 개정 법안(H.R.5475) 하원발의(9.14)

◆ [Top Headlines] 오늘의 헤드라인

- 금리인상으로 점점 더 부유해져가는 대기업들
-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가정신

싱크탱크

[경제외교] 한-미 통상 협력 포럼 주요내용

□ 「한-미 통상 협력 포럼」 개요

- KOTRA 워싱턴무역관은 국립아시아연구소(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와 공동으로 12일 美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 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해 한-미 교역·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
 - 이번 포럼에서는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으며, 조현동 주미대사가 축사 진행
 - 패널로는 주미대사관 김성열 상무관, KOTRA 이지형 경제통상협력 본부장, ASG 태미 오버비 선임자문위원, Rock Creek Global Advisors 바바라 와이젤 대표가 참석해 양국 관계현황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기조연설) 한-미 교역 관계는 지속 강화되고 있는바, 관계 증진을 통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공동이익 창출 희망

- 윤 대통령 국민 방미(4월), 캠프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8월) 등을 통해 한-미 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70년 동맹 역사상 가장 견고하며 지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
 - △자동차 △중장비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걸쳐 한국 기술 및 상품은 미국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 '13~'22년 한국기업은 미국에서 335개(약 6백억 달러)의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약 6만 4천여 개의 고용을 창출한 바, 양국 교역 심화에 따른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 국가안보 위협 대응 및 회복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必
 - 국가안보 및 인권침해국 대상 수출통제 조치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정무역 실현 △공동이익 위협 대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기술패권 확보 필요
 -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은 미국과 동맹국의 공동이익은 물론, 회복탄력적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패널토론) 양국 관계 강화의 원동력인 무역·투자의 증대를 통해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및 상호연결된 공급망 구축 필요

- (정책기조)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은 △경제안보 및 대중경쟁 △기후 변화 △경제 회복탄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을 통해 제조업 본국회귀 적극 추진 중
 - 복잡한 무역협정이 아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명령 형태의 소다자·다자간 협정 및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안보 강화 추진 추세
- (교역현황) 대미투자·수출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육성 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특히 제조업 투자에 따른 중간재 수출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바, 대미 투자가 유발하는 수출 견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

- 11년을 맞이한 한-미 FTA가 양국 교역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미수출액은 '22년 1천억 달러 최초 돌파
- 제조업 분야는 금융을 제외한 한국의 제1 투자 분야로 바이든 정부 집권기 동안 지속 증가 중이며, 미국 기업들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에 진출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핵심 공급망 차원에서의 양국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향후과제) 세계화·자유무역이 아닌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경쟁이 팽배한 시대에서 한-미간 교역·투자를 원동력으로 양국 관계 강화 및 이를 통한 상호 연결된 공급망 구축 必
- 한-미 안보협력은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며, 부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무역·투자가 협력의 핵심요소로 작용
- 아이디어,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의 교류는 향후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원동력이 될 것이며, 세계 각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배치를 유도해 공급 안정성과 경쟁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 필요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심재원 과장

○ 행 사 명 : US-ROK Strategic Cooperation Forum

○ 행사일자 : 2023년 9월 12일

[인공지능] 캘리포니아, 인공지능(AI) 정책의 선두주자

-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인공지능 (AI) 계획 행정명령의 △규제 △정부 조달 △윤리 △인력 개발 등 주요 내역 제시 및 분석(Brookings)

- 캘리포니아는 세금, 탄소 중립, 기업 경제 활동,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공공 정책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으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른 관할 지역을 위한 지표로 작용

□ 캘리포니아 인공지능(AI) 정책 행정명령

-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인공지능(AI) 계획의 선두를 이끌 행정명령¹⁾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GenAI)에 서명(’23.9.6)
 - 주 정부 기관들에게 AI 규제에 대해 적극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지시하고, 주 조달 능력을 활용하여 신뢰 할 수 있는 AI 원칙을 촉진토록 지시
 - AI 제품과 서비스에서 공정성 및 공평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AI 배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업무 능력 개발을 우선시

□ AI 행정 명령의 주요 사안 및 내역 분석

주요 사안	세부 명령 내역 및 분석
규제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서 상위 50개의 인공 지능 기업 중 35개 기업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행정 명령을 통해 AI 정책 및 규정 촉진의 주체로 인식 ▶ AI 알고리즘의 혜택 및 민주적, 법률적 절차에 대한 위협 및 위험성 인정 ▶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및 위협 수위가 높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위협, AI의 발전에 따른 도전 사항 조사 지시 ▶ <u>2024년 까지 미래의 AI 개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 사항 수립</u> 지시 ※ 캘리포니아에서 소재 정부 기관 조달 및 판매를 하는 기술 기업에 적용될 신규 규칙, 절차 및 원칙 제정 예상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 주의 3,108억 달러 예산으로 주 정부 운영 기관, 일반 서비스부서(GSA), 기술부서 및 사이버 보안 통합 센터 공공 조달 개혁 방법 모색 및 정부 기관들이 AI 구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용도, 위협 및 교육 고려 지시 ▶ 백악관의 ‘AI 권리선언서 청사진’ 및 미국 국립 기술 표준 및 기술 연구소(NIST)의 ‘AI 리스크 관리 및 관리 프레임워크’의 원칙을 언급하고, 주 정부 규칙으로 안전, 알고리즘 편견,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GenAI’ 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알림 설정 언급 ※ 기술 업체들이 각 주정부의 상이한 AI 시스템 규제를 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캘리포니아가 재정하는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큰 구매력을 바탕으로 미국 혹은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큼

1) <https://www.gov.ca.gov/wp-content/uploads/2023/09/AI-EO-No.12--GGN-Signed.pdf>

<p>윤리 (Ethic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개발을 지도하고 제품이 개인 정보, 안전 및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윤리적 기준 개발의 중요성 언급 ▶ AI 제품 및 서비스에서 <u>공평성 및 공정성이 중요한 원칙</u> ※ 캘리포니아에서 재정된 규칙은 다른 주정부 기관들이 디지털 제품이 개인 정보, 인종, 성별 및 그들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대한 공평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임
<p>인력 개발 (Workforce Develo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명령의 중요한 특징은 인력에 미치는 AI의 지대한 영향력 인식 ▶ AI로 인한 일자리 손실 및 일자리 변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논쟁의 소지를 언급하고 각 주정부가 AI 혁명에서 대다수 인력 손실이 없도록 하는 기준 제시 ▶ 고용 재교육, 성인 교육 및 직업 개발 손실에 대한 데이터 및 일자리 영향 분석 수행 제안 ※ 디지털 세대를 위한 재교육 및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 및 각 세대별로 새로운 작업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는 성인 교육을 촉진하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

□ 시사점

- 캘리포니아 주의 인공지능(AI) 계획 행정 명령은 AI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 표명
- 동 행정 명령은 다른 주정부에서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획, 구체적 지시 및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
- 정책 결정자들은 인공 지능(AI)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접근 방식으로 적절한 목표와 달성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문현주 과장
- 발간기관 : Brookings
- 발간일자 : 2023년 9월 12일
- 보고서명 : [California charts the future of AI](#)

[환경]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후법(Climate Law)를 통한 탄소감축

□ 석유·가스 산업 넷제로 달성에 IRA의 역할 및 효과 분석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세금과 보조금 및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여러 산업분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은 석유·가스업계의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미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평가

- 탄소포집·활용·저장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추진중인 가스 및 석유 업계도 IRA의 기후변화 조항 적극 환영
- 관심과 별개로, 청정에너지 산업의 투자 및 산업 성장이 저조한 가운데 Atlantic Council(AC)에서는 IRA를 통해 석유 및 가스제품의 탄소 배출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조치 분석
- 석유·가스산업, 범위 1&2(Scope 1&2)²⁾ 기후 중립성 도달 지원
 - 석유·가스제품의 생산 및 운송 등,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범위1&2 배출은 전세계 운송수단 배출량의 60%에 해당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관리에 중요
 - 석유·가스 사업 운영시 발생하는 가스배출량을 줄이고 미국 경제의 탄소중립화 달성을 위해 IRA 프로그램을 도구로 활용 필요
- 메탄 배출 감축을 통한 넷제로 도달 지원
 -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운영 중, 결함이 있는 장비에서 누출되는 비산메탄 배출 및 의도적이거나 불완전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메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 배출부과금³⁾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IRA는 메탄 요금 면제 제도 운영으로 운영자가 자본 지출을 운영배출감소 분야 투자 유도
 - 이산화탄소 대비 80배의 온난화 요인인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에너지, 폐기물, 농업 등 산업 간의 유기적 조치 강조
- 탄소 제거 엔지니어링 관리
 - 대표적인 탄소제거 공법으로 알려진 CCUS와 DAC⁴⁾ 기술에 대한 IRA 투자는 업계의 배출량을 낮추는데 도움은 되었으나 기대할 만한 성과

2) 온실가스 범위 정의: 범위1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기업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보일러, 용광로, 차량 등의 연료 연소시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며, 범위 2배출은 전기, 증기, 열 및 냉각 등을 위해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3) 미국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으로 2024년부터 미터톤당 90달러, 2026년부터 1500 달러 부과

4)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직접대기캡처(DAC): Direct Air Capture

없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단 되거나 취소되는 등 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기후중립프레임워크에서는 CCUS 및 DAC 기술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IRA는 세입법 45Q에 따라 CCUS 및 DAC에 대한 크레딧 증가
 - * 예 : 탄소격리에 대한 인센티브는 톤당 50달러에서 85달러로, 직접 공기포집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톤당 50달러에서 130 달러도 인상, 영구저장을 통한 직접 공기 포집에 대한 인센티브는 톤당 50에서 180으로 인상
- 석유 및 가스기업은 CCUS 기술 주도하며 탄소캡처 및 저장분야의 90% 공헌하였으나, 이는 감축 계획의 50% 달성 수준에 불과

○ 저탄소 수소 및 유전 전기화

- IRA는 펌프, 압축기 등을 포함한 업스트림 장비 전기화를 위한 투자에 세금 인센티브 제공하여 운영상의 배출 감소 지원
- 정유 업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IRA 인센티브로는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를 원료로 사용시 45V(청정수소생산세금공제)와 CCUS 공법과 함께 천연가스에서 생산된 저배출 수소를 지원하는 45Q (탄소 산화물 격리 세금공제)에 대한 크레딧이 대표적

○ 유엔기후변화협약(COP28)

- 11월에 UAE에서 개최될 COP28은 석유 및 가스업계의 기후 정책 방향 결정 및 에너지 전환 섹터의 신뢰성 테스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COP28을 석유·가스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및 화석연료부분 배출 관련 정책 진행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넷제로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IRA인센티브 활용 능력이 중요
- 석유·가스 산업의 탈탄소화는 탄소감축을 달성에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친환경화 하면서 IRA의 청정에너지 및 전기화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기후 완화 효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전태리 팀장, James Lee 자문관

○ 발간기관 : Atlantic Council

○ 발간일자 : 2023년 9월 11일

○ 보고서명 : [The IRA's best kept climate secret: Moving oil and gas towards operational net zero](#)

의회동향

구분	분류	발의날짜	법안명	대표 발의자
보안	하원	9월 13일 하원 발의	외국산 상업용 스파이웨어로부터 미국인 보호 법안(H.R.5440)	Himes, James A. [D-CT-4]
			외국산 상업용 스파이웨어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	
환경	하원	9월 14일 하원 통과	차량 구매 선택권 보존법 (H.R.1435)	Joyce, John [R-PA-13]
			차량 구매 선택권 보존법: 내연 기관 (ICE) 판매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청정법 개정 법안	
중국	하원	9월 14일 하원 발의	2023년 적대국 특허 금지법 개정 (H.R.5475)	Fitzgerald, Scott [R-WI-5]
			특허청장에게 중국 및 기타 적대국의 특허 출원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도록 하는 미국법 타이틀 35 개정 법안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Rising Rates Make Big Companies Even Richer (금리인상으로 점점 더 부유해져가는 대기업들)
	대기업들은 현금 및 단기투자자로부터 금리인상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고금리의 영향은 대기업이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파악됨
The Washington Post	American entrepreneurship is on the rise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가정신)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창업을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팬데믹 초기 실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The New York Times	Biden's Climate Law Is Reshaping Privat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기후법에 의해 미국 내 민간투자 재편돼)
	기후법으로 인해 청정 에너지 분야 민간 투자가 급증 추세이나, 태양열에 비해 풍력발전 분야는 미진한 것으로 파악
Bloomberg	TikTok Shop Is a Real E-Commerce Threat (이커머스 시장에서 부상중인 틱톡)
	틱톡은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에 매진 중으로, 인도네시아 내 3번째로 큰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Lazada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동부시간 9월 18일 17:00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통상 일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20	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	2023.06월
US23-19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스 의견서 주요내용	2023.06월
US23-18	RE100,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	2023.06월
US23-17	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6월
US23-16	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5월
US23-15	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및 시사점	2023.05월
US23-14	미국 반도체 R&D 지원 정책 방향	2023.04월
US23-13	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4월

-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4 (2023.6.30)		
코인시-13 (2023.6.26)		